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주 안에서 더욱 신숙히 변화되어 최상의 열매가 되기 위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전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세계 만민에게 전파할 하나님의 뜻은 인생들이 인간 경직의 참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의'를 깨뜨리자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기 의'를 발견하고 깨뜨려야 신숙히 변화되어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오, 놀라우신 그분의 능력"

하나님 사랑과 권능으로 세계 유명 패션쇼에 합격한 공대원 형제와 아버지의 중증 치매를 치료받아 행복탄 대만 최이쓰센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763호 2016년 11월 1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이 시대 명품 크리스천, 누구나 될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비법



명품 신앙을 가지면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 복음화시키며 범사에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상단 사진은 이 시대 명품 신앙인이 되어 전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전파하고자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하단 사진은 주옥같은 생명의 양식이 담긴 이재록 목사의 저서들과 한해 동안 암송한 365구절을 범위로 매년 개최되는 말씀퀴즈대회.

“중증 치매로 고통받던 아버지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최이쓰센 성도 (34세, 대만만민교회)



2013년 2월, 저(사진 뒷줄 오른쪽 두 번째)는 대만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방향하게 살아가는 결국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차 세상 것을 끊고 작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참석하지 않으며 어찌하던 기도하고 변화되고자 힘썼지요. 또한 교회 봉사도 하면서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6월부터는 가정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경, 왼쪽 사랑니를 뺐 후 이상하게 통증이 계속되었지요.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니 영적원인을 찾았고 당회장이 이재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손수건(행 19:11~12)으로 많은 사람이 각종 질병을 치료받은 것을 들으면서도, 막상 저는 권능의 손수건을 활용하지 않은 것을 깨달아 회개했지요. 이후 통증 부위에 손수건을 대고 기도하자 통증이 사라지고 발치 시 제거되지 않은 1cm의 사랑니 뿌리 잔재가 저절로 빠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4월에는 양쪽 눈꺼풀에 생긴 알라지성 안검염을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는 체험을 하면서 목자의 권능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지요. 저희 가정 또한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27일, 아버지께서 갑자기 눈이 흐리다고 하시더니 다음 날부터 화를 내시고, 옷도 입지 않으시는 등 이상한 말과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7월 20일 병원 진단 결과, 중증 치매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21일 다니엘철야 기도를 작성하고 금식하며 환자기도를 받고 나니 아버지가 화내는 것도 줄고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2016 만민 하계수련회' 참석 차 한국에 와서 아버지 사진과 병명을 단에 올려 8월 7일 주일대예배 시 당회장님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어머니와 통화해 보니 그동안 드시지도 않고 잠만 주무시던 아버지가 오후부터 활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일, 대만에서 인터넷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여 기도를 받은 후 아버지의 기억력이 살아나면서 예전의 증상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9월 20일, 병원 진단 결과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체험케 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불치병 치매 판정을 받았으나(좌) 기도받은 후 CDR 점수가 1점으로, 치매 소견이 보이지 않음(우).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수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성경예배를 사들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남포항만민교회 경복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6 ☎0541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8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회로 26 ☎042825-1205, 633-6283, 010-5434-3227
- 서울만민교회 경성북도 경주시 흥륜중로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전남 광주시 반남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이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요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삼나루안길 11 ☎0631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1322-7055, 010-69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학남로 550번길 39-33 ☎0626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신천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합빌딩 301호 ☎0610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안 해안도로 67-42 ☎061452-7443, 010-3153-1723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시 시청서길 36 ☎06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410-4194
- 서울만민교회 서울 강동구 길음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밭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구남재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9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서항로 3393 ☎033937-0271, 010-7733-1327
- 안성만민교회 경기 안성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 안성시 광동로 신달길 64 ☎031962-98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대동길 11-2 ☎0619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천로355번길 12-1 ☎05220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문로길 57 (개문동) ☎033766-1533,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광명로길 6 ☎0639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달길 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곡로949길 26 ☎055289-9522, 010-9331-4405
- 창원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서북구 성전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창원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신수동 7 두리성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9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강동지성전 서울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양화로 68, 광명빌딩 5층 ☎031952-7387, 010-8163-1537
- 북부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12, 5층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경기도 분당구 아람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9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935-9103, 010-9458-3922
- 일산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서원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의왕지성전 경기도 의왕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성결한 마음을 이룰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품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한 대로 이 시대의 명품 크리스천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기’이다.

많은 크리스천이 한해가 시작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통독을 다짐한다. 우리 교회 당회장이 이재록 목사도 최소한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을 읽고 성구 한 절 암송을 당부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깊이 심겨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경에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노트에 기록하여

그것을 붙들고 매일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 또한 신숙히 성경을 이루는 비결이다. 성경 읽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응답과 치료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은 무수히 많다. 케냐의 에스더 완지루 집사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악한 모습이 깨달아져 통회자복한 후 눈과 척추의 통증을 치료받았고, 인도 수레쉬 베타 형제는 성경 통독을 마친 뒤 신장 결석을 치료받았다.

주님을 닮은 명품 크리스천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불같은 기도’이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며 불같은 기도를 병행할 때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긴다. 만민의 성도들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단맛을 느끼며 매일 밤 9시에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물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170여 개국에 방송되는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태국 부처 카라 성도는 “그동안 가정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오던 중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기도받은 후 오빠는 심장병과 자폐증을 치료받고, 어머니는 악한 영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번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변화되기 위해 행복하게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진정 주님 마음을 닦은 명품 크리스천이 되기 원한다면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이 받아 증거한 주옥같은 설교 말씀이 무수히 많아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명쾌히 설명한 ‘십자가의 도’를 비롯해 ‘믿음의 분량’, ‘사랑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팔복’, ‘일곱 영’, ‘선’ 등의 말씀을 양식 삼아나기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들은 교회 서점에서 테이프나 CD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나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서도 요약된 설교 텍스트와 함께 청취가 가능하다. 더욱이 총 61개 언어로 발간된 다양한 책자가 있어 해외 성도들도 누구나 체계적으로 말씀 무장을 할 수 있다. 오늘날 불같은 눈동자로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대로 주님의 마음을 닦은 성결한 자녀로 신속히 나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참된 행복,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요한복음 14:12)

아버지 하나님의 뜻

10:22). 성경을 성경의 감동으로 날날이 풀어 무엇이 영, 진리, 선이며 어떤 것이 육, 비진리, 악인지를 알려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습니 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참마음을 이뤄 가고 있지요.

물론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에 양심의 악과 깊은 본성의 악까지 벗고 참마음 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친히 인도해 오 셧습니다. 이룬으로 배운 선, 사랑, 진리 를 현장 실습을 통해 확실히 마음에 정립 하고 영으로 일굴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또한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셔서 성도들 틈에 자리던 가라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스스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사랑과 신뢰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시는 과 정을 통해 하나님, 주님, 목자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을 벗지 못했을 때, 결 국 악으로 맺는 열매를 보며 ‘참마음과 온 전한 믿음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절절히 깨닫고 마음의 할례에 박차를 가 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때때로 축복의 시 험과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도록 말씀의 물로 씻어 주시고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을 하신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주님께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 도다” 하시며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 셧습니다. 바로 이런 열매를 얻는 것이 하 나님께서 사람을 경작하시는 목적입니다.

2. 인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적은 능 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때 너무 기뻐서서 축 복을 후히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 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

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불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 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여기서 다윗의 열쇠란, 다윗 왕이 누린 모든 축복을 받아 내릴 수 있는 열쇠입니 다. 이 열쇠를 가진 분은 주님이시며 주님 께서 이 문을 열어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 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사람의 수완이 뛰어 나가거나 성실해서 누리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큰 영광과 축복이 임 하는 놀라운 차원이지요.

본래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주신 복 은 영생과 부, 명예, 권세 등 최고의 복이 었습니다(창 1:28).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 의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 를 받음으로 예전에는 쉽게 얻었던 양식 도 땅 흘러 수고해야만 얻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노화와 죽음도 겪게 되었 지요. 첫 사람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머리 로서 누리던 권세는 죄로 인해 원수 마귀 사단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 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 다. 주님을 영접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사랑, 가난, 질병과 연합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된 권 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계명들을 열 심히 지켜 행하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 후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는 성도로 양 육하고자 힘썼으며, 은혜의 때마다 성도 들이 가난, 질병, 재앙을 만나지 않고 축 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항상 마음에 품어 왔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축복과 응답이 많이 임해 얼마나 감 사한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 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 인생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 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인 생들이 어떤 수치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본 듯, 만진 듯 그 크기를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 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오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목자의 용서와 오래 참음, 희생을 통해 그 사랑을 마음으로 느낄 뿐 아니라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아무리 악 한 이들이라도 어디까지 용서하는지, 어 떻게 끝까지 책임지는지를 보면서 하나 님의 크신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수고스 러우실지라도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 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이 땅에서 사람들 이 경작받는 동안에도 어찌하든 하나님 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하시는 것도 다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 신 후 주실 축복에 대해 말씀하시며 마지 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가동이 되게 하리 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 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 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 에 기록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인간 경작을 통해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마지막 때에 놀라운 권능 의 역사를 베푸는 교회를 세우시고 인생 들에게 그 뜻을 보이고 계십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무엇 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가장 아 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닦으려면 '자기 의'를 깨뜨려야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기 의를 발견하여 신속히 깨뜨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닦아 주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기 바란다.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자기 의'

자기 의에는 하나님 뜻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세상적인 의가 있는가 하면, 진 리를 바탕으로 만든 자기적인 의가 있는데 이것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진리 를 많이 알고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내기도 하니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다. 자신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은연중에 자기 생각과 행동이 옳다는 의식이 자 리를 잡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허락하심으로 스스로 발견해 자기 의를 깨뜨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

세상적으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상대가 옳은 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존 심이 상하고 감정이 나서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가 하면,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무시해 버리기도 한다. 반면 진리를 바탕으로 만든 자기 의가 있으면 상대방에 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자기를 고집하거나 주장한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지방의 마리아가 지극 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 가롯 유다가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 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으며 불편해한다. 그 말만 들으면 그럴듯 하지만 사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돈을 도적질할 마음이 있 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해서도 안 되고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마다 성장 환경과 배움 등이 다르기 때 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대부분 화평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아 신속히 자기 의를 발견해 깨뜨려야 한다. 그럴 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고 주 안에서 풍성한 응답과 축 복을 거둘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자기 의'의 모습, 3가지

첫째, '질서를 좇지 않는 것'

나는 사도함이나 영적인 것을 침노한다는 이유 로 질서를 깨고 있지는 않으니 돌아봐야 한다. 하 나님 나라는 질서에 따라 정확하게 세워졌기에 질서를 좇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 한다면 질서에 순종할 수 없다. 설령 윗사람이 자신보다 못하다 해도 중심에서 섬기고 순종할 때 어찌하면 윗사람을 도와 하나님 일을 더 잘 이 룰까 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신다.

둘째, '사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주 안에서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 기 위함이지 결코 자기 자랑이나 명예, 유익을 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이 돌아가고 칭찬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룰 수만 있다면 기꺼이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양보하지 않고, 자 신의 공적이 드러나야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 면 서운해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곧 사심이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셋째, '내 것'을 더 중요시하는 마음

내 가족, 내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게 속한 것 등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더 중요하 게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양 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기준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지도 못하고 이해하거나 용서하지도 못한다.

얼마나 '상대의 것'을 먼저 생각해 주었는지 돌 아보며 상대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상대가 우하 면 나는 좌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반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과(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오식안)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월야기기도회	9:00 PM (매월/ 단, 토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한 장(구)독 시 우송료만은 장(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분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영)

November 11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민음의 분량
- 창세기 강해 4-10
- 요한일서 강해 19-24
- 의와 틀을 깨뜨리자 1-2
- 육체의 결여 1-2
- 믿음을 책망하시니 5-9
- 성경적 결혼관 2

GCN TV설교

- 영의 기도 (이수진 목사)
- 익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재명 목사)
- 마음 2 (이화선 목사)
- 민음의 분량 10 (신동초 목사)
- 열 제왕 25 (정구영 목사)
- 진정한 축복 (김수정 목사)
- 명품 신앙 (임학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몽도 트든 마음도 트든 (다시해보게 10)
- 알광달광 어여쁜 율동 66
- 창조와 과학 19
- 내 마음의 찬양 42
- 모두 드려요 57
- English 13

해외성경 및 신규 프로그램

- 마지막 때 3
- 말씀 스페셜 10
- 리리아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5
- 권능 스페셜 10
- 회상 16
- 믿음으로 걸어온 길 5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6. 11. 13 ~ 11. 19

GCN HD 채널 kt allen tv 882번